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삼표愛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서로 꼭 맞게 하나가 될 때 퍼즐은 완성됩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배운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그림을 완성하는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밝아온 새해,
삼표가 희망을 드립니다.
동양시멘트와 한 가족이 된 삼표는
힘찬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찾아오지만
둘이 하나가 된 지금이
한 발 먼저 나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한다면
2016년은 분명 더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표지모델
삼표봉사동호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참여자
삼표산업 물탈영업1팀 김진형 사원
삼표피앤씨 파일영업팀 채린 대리
삼표산업 물탈기획팀 전형민 사원
삼표 레미콘물류운영팀 양효정 사원
유니콘 회계2팀 윤주호 사원

NEW LEADER, RECREATE, **SAMPYO**

〈삼표愛〉는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2016 WINTER SAMPYO Vol.49

04 Chairman's Message

06 SAMPYO NEWS

10 HOT! 이슈
삼표그룹의 따뜻한 연말 나기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다

14 현장 속으로
벤치마킹하고 싶은 공장으로 우뚝 서다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의 삼표피앤씨 제천 파일공장

18 소개합니다
“하늘 끝까지 달린다~!”
동양시멘트 생산팀 김대현

20 오늘은 내가 쓴다
아빠의 소중한 인연 우리 딸 소연이에게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운영팀 최진영 과장

22 특별기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자”
동양시멘트 경영기획팀 이길우 부장

24 포토 이벤트
2016년 새해 ‘소망’과 ‘다짐’

26 맛있는 발견
삼표인이 소개하는 우리만의 맛집 이야기 – 강원도 삼척
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최진호 대리

28 건강 100세
커피 한 잔 할까요

30 지식 通
아울렛 상품의 진실,
아울렛과 백화점 제품에는 정말 차이가 있을까?

32 트렌드를 말하다
굳이 새 것 살 필요 있을까? 요즘 대세, 중고 거래

34 여행을 떠나요
여름 나라, 남국으로 간다고 전해래

38 열린 편집실
독자 퀴즈

39 사우동정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www.sampyo.co.kr (주)삼표 사보 ‘삼표愛’

2016년 겨울호(Vol.49) 계간 비매품 • 발행인 정도원 • 발행처 (주)삼표산업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전화 02-6270-0759 • 발행일 2016년 1월 5일
•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 02-3447-7601 • 인쇄 내인 02-2278-0773



친애하는 삼표 가족 여러분!

병신년(丙申年)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그룹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4월부터 여주 피씨PC(사전 제작 콘크리트) 공장이 가동되었으며, 건설·부동산 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10월에는 동양 시멘트가 새로운 가족이 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건설기초소재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그룹의 주력사업인 레미콘의 원료가 되는 시멘트, 골재, 플라이애쉬, 슬래그파우더 사업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몰탈과 Precast Concrete, 파일(Pile)까지 거느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설기초소재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삼표 그룹과 동양시멘트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수직계열화에 걸맞은 시너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물류 통합운영, 연구개발(R&D), 마케팅 통합 및 재활용 사업의 협력을 통해 비용절감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기술, 제품구성 등 모든 면에서 **진정한 마켓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와 연동되어 경기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 중국은 20년 이상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 원자재 시장의 블랙홀(Black Hole)이었으나, 최근 들어 성장률이 7%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으로 떨어져 버린 것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주변의 모든 부문이 예측 곤란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2007년도 거품경기 때보다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시멘트 수요가 10%이상 늘어날 정도로 전례 없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시장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훈련하고 일상적인 업무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2016년은 물론 중장기 전망에 대하여 다양한 지표들과 사회경제적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장단기 경영전략에 반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그룹 모든 임직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숙한 조직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과거 수출을 통해 국내성장을 견인해 왔던 대기업은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도전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나 알리바바는 이미 국내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기술력 차이도 좁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하던 조선, 화학, 철강산업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맹추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유수의 수출 대기업들이 향후 마이너스 성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감원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수 분야도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보다는 정체 내지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이(GE), 애플(APPLE), 이케아(IKEA), 듀퐁(Dupont)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히려 위기를 통해 강인해지고 경쟁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고 성장해 온 과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원가와 인력에 대한 경쟁력, 기술과 제품의 차별화,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선호도를 경영의 핵심지표로 삼고 임직원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그룹이 영위 중인 대부분의 사업은 수요전망이 비관적인 내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과잉에 따라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 서비스보다 가격이 절대적인 경쟁요소이기도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전례와 같이 승자 없는 전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통해 시장을 리드하는 전략**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그룹은 수직계열화와 제품다양화가 가장 잘 갖춰진 회사입니다. 계열사별로 분산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룹차원의 Package영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고객 니즈(Needs)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룹의 일원이 된 동양시멘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품질 향상과 제품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술 지원과 사전/사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하며, 그룹 제품과 시멘트 제품의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여 단순히 시멘트 공급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종합적인 가치를 공급하는 회사로 전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룹 계열사와 기술 및 고객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고객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 Project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의 기초인 **원가경쟁력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와 동양시멘트 공히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 투자를 추진함과 아울러 자원재활용과 저가혼합재 소싱(Sourcing) 역량을 강화하고, 왕복 운송과 교환 확대를 통한 물류비 절감, 그룹 통합구매를 통한 구매원가 절감 등 모든 분야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소재산업은 물류비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거점이 다양화되고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양시멘트의 물류를 포함하여 물류 범위를 확대하고 물류 시스템의 합리화, 전산화, 선진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표와 동양시멘트가 하나의 회사라는 인식하에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여 서로가 가진 장점을 이식시키고, 구매, 영업, 물류, R&D 등 유사 조직과 기능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어, 그룹차원에서 비용절감과 조직 시

너지가 창출되도록 각 사업 부문 대표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과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업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신상필벌의 조직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정보통합관리를 위한 ERP(전사적 자원관리) 재구축 작업과 업그레이드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설비, 장비, 선박, 채광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과 생산부문의 다양한 개선 노력과 함께 **재무 부문의 안정화와 금융 비용 절감, 신용등급 향상**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부문 역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조달 비중 확대, 장기 저리 자금 확보, 조달원의 다양화, 금융기관 거래 편중도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가족 여러분!

‘후한서’에 경초(勁草)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센 풀이라는 뜻으로 의지가 깨끗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이 풀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다른 풀들은 다 쓰러져도 이 풀만큼은 한 번 휘어졌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고난과 역경이 앞을 가로막아도 삼표인들은 깨끗한 의지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는 그룹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과 직원이 따로가 아니고 노와 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를 하나의 팀이 되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열정으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1월
회장 정 도 원

1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통합시스템을 말한다.

(주)삼표



삼표그룹, 새출발 기념식 행사 개최

삼표그룹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동양시멘트를 새 식구로 맞이하는 새출발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은 축하 동영상 상영,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인사말, 케이 크 커팅, 동양시멘트 최병길 사장 건배사 및 종식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도원 회장은 “동양시멘트와 삼표 그룹이 한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자랑스러운 삼표 가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그룹 성장을 위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온 삼표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삼표그룹은 이번 동양시멘트 계열사 편입으로 레미콘 원료인 시멘트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 업계 최초로 건설기초소재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그룹 전 사업 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제품 구성과 서비스, 품질, 기술 면에서 명실상부한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을 토대를 갖췄다.

삼표 물류부문, 강원도 삼척지사 설립

삼표 물류부문은 지난해 10월 강원권 시멘트 판매 및 조달물류 업무 관장을 시작했다. 조달물류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공급처가 원자재를 포장하여 제조업체의 자재창고까지 운송,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을 말한다. 조달물류는 물류활동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원재료 구매, 자재창고 보관, 효율적 자재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

이번 지사 설립으로 인하여 동양시멘트 판매 및 조달물류를 통한 안정적 골재 수급 등 직접 운송 체제를 통한 물류 안정화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복화 노선 및 연계 물량에 따른 추가 운송 수익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삼표 물류부문 정진호 상무는 “삼척지사 설립은 향후 전국 권역으로의 효율적인 시멘트 운송을 위한 제2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삼표산업



삼표산업 골재부문 '2015년 골재부문 하반기 워크숍' 개최

삼표산업 골재부문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2015년 골재부문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골재 관련팀, 각 사업소장 및 영업소장 등 임직원 45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골재기획담당 김태희 부장의 2015년 실적 평가 및 2016년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영업, 생산, 물류부문의 사업계획을 위한 중점추진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삼표산업 손병수 대표이사는 “발표 및 토의를 통해 부서 간 이슈 공유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각 사업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내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삼표산업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학생

삼표산업 풍납공장 견학

지난해 11월 17일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학생들 30여 명이 참가한 공장 견학 행사가 진행됐다. 견학주관을 맡은 품질경영본부에서는 참가 학생들에게 삼표산업 소개, 레미콘의 생산 및 제조과정, 원재료 및 제품의 품질관리, 책임한계 등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실습시간에 학생들은 풍납공장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배합 시험을 통해 원재료에 따른 최적의 배합설계에 대해 배우는 등 현장실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을 견학에 참여시킨 동양미래대학교 장덕배 교수는 “삼표산업에서 학생들을 위해 근무시간 이후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전공 관련 실무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어 예비 건축인으로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주)삼표이앤씨

삼표이앤씨 'Q클립 고탄성 레일체결장치', '올해의 10대 철도기술' 선정

지난해 12월 21일 삼표이앤씨의 'Q클립 고탄성 레일체결장치'가 한국철도학회에서 주관한 '2015년 올해의 10대 철도기술'에 선정됐다. Q클립은 Q모양의 레일체결구조로써 레일하부에 소프트한 패드 사용이 가능한 고탄성 클립이다. 과거에는 자갈도상용 체결장치에 소프트한 패드 사용시 클립이 파손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열차는 점차 고속화되고 있는 반면, 레일체결장치는 이에 상응하지 못해 궤도가 파괴되거나 도상자갈이 세립화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궤도 고탄성화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수행됐다. 당사 개발품은 가장 경제적이고 간단한 고탄성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강기동 사장은 “Q클립은 기존 클립 대비 체결구의 상하 움직임이 2배 가량 자유로운 고탄성 패드 사용을 가능하게 한 제품”이라며 “이를 자갈도상에 적용하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상받은 철도관련 기술은 삼표이앤씨의 Q클립 외에 세계최초 복복선 철도교 동시교체 공법(코백),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총 10건이다. 철도학회 홍용기 철도학회장은 “이번 우수 철도기술 선정을 계기로 국내 철도 기술이 세계철도 시장에서 보다 더 경쟁력을 갖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5 올해의 10대 철도기술'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 등을 발굴해 철도 발전을 유도하고 국내 우수 철도 기술을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2015년 처음 제정됐다.



주경한



경한·네비엔 환경자원사업부문, 창립기념 산행 실시

경한·네비엔 환경자원사업부문은 지난해 11월 27일 경북 문경새재에서 창립기념 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에는 경한, 네비엔, 동양자원, 네비엔REC, 당진 철도 임직원 130명이 참석했다.

산행 후에는 우수관리자 및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이어서 임원 및 부서, 신규입사자 소개가 진행됐다.

경한·네비엔 박영동 대표이사는 “2015년은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운 시기였지만 새해에는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업장간 원활한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각자의 능력개발과 안전에 유의해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경한·네비엔 철스크랩사업부문, 창립기념 산행 실시

경한·네비엔 철스크랩사업부문은 지난해 12월 1일 대구 팔공산에서 창립기념 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에는 경한, 네비엔, 동양자원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팔공산 동봉 정상에 올라 2016년도 도약을 의미하는 결의구호를 외쳤다. 산행 후에는 우수관리자 및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임원 및 팀 소개, 신규입사자 소개가 진행됐다.

임순태 경한·네비엔 철스크랩사업부문 본부장은 “2015년은 삼표 창립 49주

년 되는 해로 반 백년 세월 동안 삼표그룹은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며 “삼표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철스크랩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2016년

에도 화합과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한 슈레더사업장, 현대제철 5STAR 현판식 실시

지난달 12월 9일 경한 슈레더사업장에서 현대제철 5STAR협의회 현판식을 가졌다. 5STAR협의회는 국내 현대제철 철스크랩 공급업체 31개사의 모임으로 철스크랩 업체간 동반성장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설립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현대제철 김범수 구매본부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판식 진행 후 경한 슈레더사업장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경한 박영동 대표이사는 “경한 슈레더사업장은 폐자동차 파쇄, 철스크랩 선

별 및 비철을 선별하는 국내 최대의 슈레더 사업장”이라며 “5STAR 현판식을 계기로 국내 철스크랩 공급사들과 함께 양질의 철스크랩을 제강사

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량수급과 품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주)



동양시멘트, 최병길 대표이사 선임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10월 22일 강원도 삼척공장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병길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선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삼표그룹은 지난해 9월 ㈜동양이 소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54.96%를 7,943억 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최병길 사장은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의 최적의 파트너사로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건설기초소재 관련사업으로의 확장을 지속해 2020년까지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사장은 “삼표그룹과 동양시멘트는 이제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로서 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충만한 기업으로 진화해나가야 한다”며 “임직원들은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각 부문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최병길 사장 외에 이정수 사장, 정대현 부사장, 강형규 부사장, 김종오 부사장, 정한열 상무, 정진호 상무보 등이 새롭게 동양시멘트 임원으로 선임됐다.



동양시멘트 사무기술직 노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동양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위원장 김은석)은 지난해 12월 14일 삼척시청(시장 김양호)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은석 동양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위원장은 “공장이 위치한 삼척시의 어려운 이웃과 다양한 계층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 기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삼척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2014년 11월 13일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은 197명이다. 동양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은 매년 정기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양시멘트, 일본 DENKA社와 신제품사업화 기술미팅 진행

지난해 12월 15일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 일본 ‘DENKA社’ 연구소 및 해외사업부 관계자 5명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DENKA社의 제품 시연회 및 동양시멘트의 신제품 사업화 협의를 위해 계획됐으며 삼척공장, 특수영업, 삼표산업연구소, 삼표기초소재 임직원 총 21명이 기술미팅에 참여했다.

DENKA는 특수시멘트전문회사로서, 화학제품, 전자재료, 생활과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 3조 5000억원 규모의 회사다. 이날 미팅은 삼척공장 생산라인

및 광산견학, DENKA社 가소성 그라우트 제품 시연회, 기초소재 재료 대체 협의, 동양시멘트 속경성 혼화재료 제품소개 및 실험결과 순으로 이어졌다. 미팅을 주관한 동양시멘트 기술연구소담당 허홍기 상무는 “동양시멘트를 포함해 삼표그룹의 주요 연구 인력들이 함께 미팅을 진행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표그룹의 따뜻한 연말 나기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돌아보는 마음, 낙후된 지역에 사는 이웃의 환경을 헤아리는 마음,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이웃의 밥상을 챙기는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삼표그룹은 따뜻한 연말나기를 했다. 연탄 배달과 쌀 지원, 김장 담그기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친 삼표그룹 직원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동양시멘트

자원봉사단의 뜻깊은 하루

지난해 11월 28일 달콤한 휴일의 늦잠을 마다하고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임직원 및 가족자원봉사단원들이 하나 둘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척시 관내 저소득 가정과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급여 1만 원 이하의 '월급 끝다리(우수리) 떼기 운동'으로 모아진 성금으로 구입한 연탄 2,000장을 삼척시 미로면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5가구에 400장씩 전달했다. 봉사단원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집까지 차



량 진입이 어려워 연탄 배달이 쉽지 않은 산골 오지만을 골라 연탄을 배달했다. 가장 먼저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봉사자들을 위해 호박죽을 만들고 이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 연탄을 나르고 떠나려는 봉사자들을 배웅하며 할머니는 동상으로 붉게 변한 손으로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다. 자녀들 생각이 나서인지 혹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묻지는 못했지만 봉사자들도 가슴이 먹먹해져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은 동양시멘트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들이 '가족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참여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다. 가족봉사단원 김정자씨는 "동양시멘트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며 "아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좋았고 우리 주변의 외롭고 지친 분들을 찾아가는 가족봉사단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자원봉사단은 순수 봉사 단체로 2004년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다. 자원봉사단의 재원은 동양시멘트 임직원 월급 끝다리 떼기 운동(만원 이하 금액) 및 자발적 후원금, 봉사단 회비 등으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산불, 폭설, 수해지역 재해복구, 결식아동 후원, 하늘안식의 집(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 정기 후원, 장애인 가정 집수리, 연탄 배달 봉사(매년 5~6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한상욱 자원봉사단장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작은 나눔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연탄봉사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여 년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를 해 온 동양시멘트 자원봉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미덕을 실천할 계획이다.

추위를 녹인

삼표봉사동호회의 붉은 땀방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표그룹의 연탄봉사 날은 차디찬 삭풍이 부는 한파의 날이었다. 일기예보에서는 올겨울 가장 춥고 눈까지 내린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봉사 당일 날인 12월 18일, 사내게시판을 보고 참여를 신청한 비동호회원과 동호회원 30여 명이 모였다.

- 1, 2 동양시멘트 임직원 및 가족자원봉사단원들이 삼척시 미로면에서 저소득 가정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 3 삼표봉사동호회원들과 동양시멘트 최병길 대표이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연탄을 지게에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1



2



3

설립 2주년을 맞은 삼표봉사동호회 회원들은 초심을 다잡고자 첫 활동 장소였던 서울시 중계본동 104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다. 2년째 이곳을 찾은 몰탈영업팀 유우종 사원은 “손발이 시린 한 겨울이지만 연탄을 지게에 지고 나르다보면 어느새 붉은 땀방울이 흐른다”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으며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새해를 시작할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사회복지단체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7,000여 장을 기부하고 1,500장을 직접 집까지 배달했다. 봉사활동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동양시멘트 최병길 대표이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나와 준 자원봉사자들이 대견하다”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삼표봉사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삼표봉사동호회는 2014년 11월 설립된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송파구내 독거노인 14가구를 방문해 겨우내 묵은 이불을 수거해 깨끗이 세탁한 후 전달하는 한편 새 이불을 구매해 나눠줬다. 4월에는 종로구에 위치한 문화재 ‘문묘(文廟)’를 방문해 대성전(大成殿) 주변의 잡초를 뽑고 먼지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진행했다. 8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정기봉사를 하고 있다. 아동보육시설인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부모 사망, 부모 가출, 한부모 한모의 질병, 장애, 빈곤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만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70여 명이 거주하는 보육원으로 동호회원들은 이곳에서 매월 요리와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한 동호회 회원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수고료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져 또 다음 봉사활동을 기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천공장 인근 주민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지난해 11월 22일 제천공장 산악동호회 회원들은 공장에 인접한 제천시 봉양읍 장평 1, 2리에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등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 산악동호회원들 사이에서 ‘매년 산악활동으로 연말을 맞이했지만 올해는 봉사활동으로 마무리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봉사활동을 처음 진행했던 산악동호회원들은 장평리 이장에게 연탄이 가장 필요한 곳에 대해 문의했다. 이장은 “농협이나 읍사무소 등의 연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몇 가구가 있어 연탄 구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다”며 반색했다. 산악회원들은 6가구의 지원 대



4



5

상 명단이 추려지자 1톤 트럭을 빌려 2,220장의 연탄을 구매했으며 비용은 산악동호회원들의 화비로 충당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산악회원들은 “연탄을 지원받지 못한 가구 중 식재료가 필요한 곳에 쌀 6포대를 전달해달라”며 이장에게 쌀 위탁 증정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제천공장장 이해영 부장은 “그동안 산악회 활동을 하며 산 정상으로 오르는 것에 보람을 느껴왔는데 직원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니 색다른 보람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제천공장 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내 삼표그룹 계열사의 맛있는 나눔

입동 준비의 첫 번째는 단연 김장 담그기다. 지난해 11월 20일 삼표그룹 계열사 직원들은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비봉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회 및 화성시새마을회에서 주최했고, 화성시 소재 삼표산업 직원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계열사 직원은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석산), 화성공장(레미콘), 화성 몰탈 공장, (주)경한 삼표리사이클링 화성사업소 임직원들이다. 전날 미리 절여놓은 배추에 직원들은 맛깔스런 양념을 정성스럽게 채워 넣어 한 포기 두 포기 김치를 만들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김장 담그기에 폭 빠진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되어야야 면사무소에 준비한 수육에 처음으로 김장을 맛봤다. 봉사활동 후에 먹는 음식은 집에서 담근 김장이랑 사뭇 느낌도 다르고 맛도 달랐다. 여기저기서 연신 “맛있다”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짧은 점심 후 김장 담그기는 오후 세시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완성된 1,500포기의 김치는 보령박스에 깔끔하게 포장돼 내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봉사활동을 마친 화성사업소 신혜식 소장은 “화성시 내 삼표그룹 계열사 직원들은 지난 3년간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



6



7

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통해 화성시 내 소외계층을 돕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말 그대로 십시일반(十匙一飯) 성의다. 시간 부족이란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추위에 떠는 불우이웃이나 불경기로 찾는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기쁨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다. 삼표그룹은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기부와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1 삼표봉사동호회 회원들은 2년째 서울 노원구 104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2 삼표봉사동호회 회원 총무팀 장명원 사원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 3 삼표봉사동호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인 구세군 서울후생원에서 정기봉사를 하고 있다.
- 4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전찬희 대리(왼쪽)와 이상술 사원(오른쪽)이 공장 인근 지역에서 연탄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 5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직원들과 이해영 공장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6, 7 화성시 내 삼표그룹 계열사 직원들과 화성사업소 신혜식 소장(첫번째 사진 오른쪽 첫번째)은 3년째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벤치마킹하고 싶은 공장으로 우뚝 서다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의 삼표피앤씨 제천 파일공장

삼표피앤씨가 파일시장의 후발주자에서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기까지에는 ‘할 수 있다’라는 도전정신과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설립된 제천공장은 끊임없는 R&D(연구개발)로 매년 국내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이라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하던 공장에서 이젠 기술을 배우러 찾아오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대구경 파일과 초고강도 파일 시장을 선도하는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을 찾아갔다.



국내 최초 대구경 파일을 만든다

삼표피앤씨가 최고의 파일(Pile)을 공급하는 선도기업이 된 데에는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제천공장의 역할이 주효했다. 제천공장이 설립되기 전인 2009년까지만 해도 파일 제품은 소구경(직경 350~400mm)과 중구경(직경 500mm~600mm)이 주류를 이뤘다. 당시 업계는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오로지 가격 경쟁으로만 제품을 만들어 냈다. 이런 편향성 속에서 제천공장이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고강도 대구경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 파일(700mm~1,200mm)을 개발하면서 업계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고강도 대구경 PHC 파일이 건설관계자들의 이목을 끈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대구경 파일은 설계 강도와 휨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커 초고층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에 적합하고, 높은 지지력으로 중구경 파일 대비 공사기간이 20~30% 단축되어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 이후 소구

경이나 중구경에 비해 대구경 파일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삼표피앤씨는 파일 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국내 30여 개의 파일공장 중에서 700~800mm 이상 대구경 파일을 생산하는 공장은 10여 군데에 불과하며, 1,000mm 제품까지 KS인증을 받은 공장은 제천공장이 유일하다.

일본을 앞선 세계 최초 초고강도 파일

제천공장 직원들에게 2011년은 그 어느 해보다 뜻 깊은 해로 기억된다. 세계 최초 초고강도(130MPa) PHC 파일 개발에 성공해 국내외에서 ‘파일 선진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했다. 더욱이 PHC 파일의 선진국인 일본(105MPa)보다 더 높은 강도의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출시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초고강도 PHC 파일 상용화(110MPa)가 이뤄졌다. 초고강도 PHC 파일의 장점은 파일 1개당 견딜 수 있는 무게에 있다. 기존 파일이 개당 170톤(500mm기

- 1 제천공장은 국내 최초 대구경 파일 전용 설비라인을 구축하고 세계 최초 초고강도 PHC 파일을 개발했다. PHC 파일은 연약지반에서의 건설공사나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 등 지반의 기초구조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고강도 파일이다.
- 2 제천공장 야적장에 출하를 대기하고 있는 파일들이 쌓여있다. 제천공장은 대구경(700~1,200mm), 중구경(500~600mm) 파일을 생산하고 있다.
- 3 제천공장 내부에는 2교대로 공장을 풀가동하기 위해 철근이 가득 쌓여있다.



1 생산팀 박태식 사원이 철강 망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2 생산팀 최병일 사원이 망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3 생산팀 풍주용 사원이 몰드 내 콘크리트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4 이해영 공장장(아랫줄 왼쪽에서 4번째)과 공장 직원들이 환영의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고 있다.

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면 초고강도 파일은 29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또한 파일 1개 당 허용지 지력 상승으로 시공 수량이 30% 이상 절감돼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파일 내력 상승으로 파일 하단에 특수 구조물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공공법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초고강도 PHC 파일 제품이 가진 효능이다. 현재 초고강도 PHC 파일은 중구경에서 주로 사용되며, 삼표 피앤씨는 그 중심에서 차별화된 초고강도 파일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으로 탄생된 제천공장

제천공장의 시작과 함께 성장해온 직원들은 첫걸음을 내딛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감회에 젖는다. 직원들이 기억하는 제천공장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공장 허가 후 공장부지 조성부터 빠빠거리며 고난이 시작됐다. 제대로 된 진입로조차 없어 산을 깎아 길을 만들어야 했고, 발파와 성토 등 토목공사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이후 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쏟고 제천시의 협조로 현재의 멋진 위용을 뽐내는 공장 부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한데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천공장의 설립 목적은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대구경 파일과 초고강도 파일 개발을 통해 삼표피앤씨가 국내 파일시장의 기술 및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벤치마킹할 곳을 찾

았지만 국내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설립 멤버였던 10여 명의 직원들은 벤치마킹의 무대로 일본 '도요사노사'를 택했다. 지진에 취약한 지형 구조인 일본은 튼튼한 하부구조 산업이 일찍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은 일본의 기술을 습득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켰다. 일본의 기술을 습득해 공장의 기틀을 마련했던 제천공장은 이제 전국의 파일 공장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공장이 됐다.

후발주자에서 파일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제품생산에 있어서도 우여곡절은 계속됐다. 제천공장은 국내 최초로 대구경 및 초고강도 파일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현장 적용 실적 부족으로 선뜻 당사 파일 적용을 꺼린 탓에 2011년까지 가동률이 30%~6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삼표 피앤씨가 포스코건설과 협약을 맺고 개발한 초고강도 PHC 파일이 히트를 치면서 업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에 대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2012년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제천공장에서도 물량 공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일부 파일은 국내 파일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림C&C와 영풍 파일에서 도급생산 후 납품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제천공장은 공정 및 야적장 재고 운영 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연간 3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제천공장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에 가까우며 제품별 매출 비중은 대구경 파일이 40%, 초고강도 파일이 60%를 차지한다. 제천공장에서 2015년 한 해 생산한 파일을 길이면 환산하면 843km에 해당하는데, 이는 서울-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지난 11월 제천공장은 삼성물산 팽택 현장 대구경 파일(800mm) 납품 중인 5개사 중 최우수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최근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17년 서해안권에 제2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영종도 국제공항 여객청사 및 활주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신축공사, LH 진주 본사 사옥, 법무연수원, 인천 아시아주경기장, 포스코건설 다샵 아파트, 삼성 전자 팽택 고덕, 당진 현대제철, 서울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세곡지구 등 제천공장에서 파일을 납품한 국내 랜드마크 건물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24시간 최고의 팀워크 풀가동

생산팀 김재호 부장은 제천 파일공장의 자랑거리로 '언제나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직원들 간의 팀워크'를 꼽았다. 현장 공정 간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1인 다기능 인력으로 육성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공정별 이해도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월간 조별 회식, 연간 체육대회, 테니스 및 산악 동호회 활동 등 현장 및 사무직 직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1~2월에는 1박 2일로 직원 가족들이 함께 동해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차가운 바다물에 뛰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제천공장장 이해영 부장은 깨끗한 생산현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 한 명당 1개의 빗자루를 지급해 파일이 1개 만들어질 때마다 수시로 주변 청소를 하게 했으며, 매월 4명의 클린 직원을 선정해 가족식사권 10



만원을 지급해 동기유발을 꾀했다. 제천은 겨울이 되면 분지 지역 특성상 수은주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몰아친다. 혹한에 난방조차 쉽지 않은 공장이지만 직원들은 동료를 믿고 의지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이들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제천공장은 제천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

5 생산팀 엄기승 사원(왼쪽)이 몰드 볼트 체결 작업을 하고 있다.

6 완성된 파일이 거꾸집에서 분리되고 있다. 깨끗한 생산현장 만들기를 위해 공장 직원들은 1인 1빗자루를 사용해 수시로 청소한다.

7 품질관리팀 장호영 사원(왼쪽)과 위재한 사원(오른쪽)이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배합 시험을 하고 있다.

8 품질관리팀 위재한 사원(왼쪽)과 한덕희 차장(오른쪽)이 제품 횡강도 시험을 하고 있다.

9 현대엔지니어링 서산현장에서 중구경 PHC 파일(직경 500mm) 항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Mini Interview

파일시장을 선도하는 공장으로!

이해영 공장장



공장 설립 후 현재까지 제천공장을 진두지휘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구경 파일 공장이 없던 시기라 공장 설립부터 모든 것을 제로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해외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다시 우리의 기술로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시험실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공장 가동을 할 수 있었던 점과 국내 파일시장의 선두가 되고자 포스코건설과 함께 개발했던 초고강도 파일을 건설현장에 처음으로 적용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양시멘트 계열사 편입으로 제천공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동양시멘트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점과 기술협력을 통한 신제품, 신공법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과거 초고강도 파일 개발 시 동양시멘트 3종 조강시멘트로 실험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협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양시멘트가 삼표그룹의 새 식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기술교류를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원재료 성능 개선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변하게 한다'는 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현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도 없으며 먼저 변화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기 마련입니다. 절박함을 갖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갖춘다면 직원들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사업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PHC 파일 시장은 대구경, 초고강도, ICP(Infilled Composite PHC Pile) 등 특수 파일시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2017년경 공장 증설을 추진해 시장점유율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파일 업계를 선도하는 공장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개합니다



인터뷰. 장새롬 대리

“하늘 끝까지
달린다~!”

동양시멘트
생산팀 김대현

19년째 삼척 동양시멘트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현(44)씨는 10년 넘게 마라톤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나이를 먹는 것과 관계없이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그는 삼척에서는 꽤 알려진 아마추어 마라토너다. 지금까지 대략 40회 가까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풀코스 42.195km 최고 기록은 하남-여의도 한강길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2시간 52분.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달리기로 출퇴근을 하는 그에게 마라톤의 매력에 대해 물어봤다.

김대현씨는 7년째 삼척시 대표로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다.

특별한 취미나 재능을 가진 직원 또는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는 직원을 소개합니다. 사보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신 분은 간단한 추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추천은 본인 또는 지인 추천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 홍보팀 장새롬 대리 com2mi@sampyo.co.kr

마라톤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10년 전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3.1절 기념 삼척 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마라톤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아 부모님과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리기를 시작한 뒤로 10년 동안 병치레는 고사하고 감기조차 걸린 적이 없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 건강에 해로운 것은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금연도 했습니다. 처음 참가한 10km 단축 코스에서는 걷다 뛰다 하면서 간신히 완주했는데 차츰 기록이 향상되고 거리도 늘어나면서 재미를 느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넘어설 때의 기분은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맛에 오늘도 열심히 뛸니다.

3교대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꾸준히 마라톤을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출퇴근은 비가 오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뛰어서 합니다. 회사까지는 왕복 6km, 뛰어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쉬는 날에는 동양시멘트 직원이나 지역 주민들과 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달렸는데 여러 차례 수상을 하고 이름이 알려지자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두세 시간씩 달리기를 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럿이서 같이 뛰면 더 재미있고 친목도 다질 수 있습니다.

3교대 근무에 마라톤대회까지 출전하시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가정에 소홀해지는 듯 싶으면 금세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눈치껏(?) 짬뽕이 시간을 내서 설거지와 집안 청소를 도와 줍니다. '내가 늘 집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웃음) 대화가 있거나 지인들과 달리기 약속이 있으면 뒤탈이 없도록 더 바쁘게 청소를 하고 갑니다.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1박 2일로 일정을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과 맛집 투어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참 바쁘죠?(웃음)



1



2



3

- 1 2014년 대관령 알몸마라톤 출전 모습. 올해 1월 17일에도 출전을 앞두고 있다.
- 2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도 마라톤에 함께 출전했다.
- 3 15회 3.1절 기념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서 김대현씨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라톤 관련 수상실적과 경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것을 서브(Sub)-30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아마추어 마라토너 사이에서는 초고수 주자에 해당하죠. 저는 현재까지 15회 서브-3 달성을 했습니다. 한 해 10회 이상 서브-3를 달성한 아마추어 선수는 동아마라톤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데 2014년에는 전국 35명 중 17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민체전에 삼척시 대표로 참가한 것도 7년이 됐습니다. 우승 기록은 2014 KOREA 연대별 최강전 대전 마라톤대회, 경기도 광주 춘계 팔당호 마라톤대회, 인제 내린천 마라톤대회, 2015년 3.1절 기념 삼척시민 건강달리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기록은 오히려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에 처음 철인 3종 경기 전국단체전에 참가했습니다. 마라톤, 수영, 사이클 각 분야에서 3명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하는데, 그때 함께한 아마추어 수영선수에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마라톤을 10년 이상하다가 수영을 배우게 되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철인 3종 경기를 직접 하게 됐죠. 철인 3종 경기를 하니 또 다른 극기(克己)에 도전하는 것 같아 짜릿합니다. 이제 철인 3종 경기에서 기록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마라톤은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요?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인내입니다. 단시간에 실력이 연마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운동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연습하는 만큼 체력이 좋아지고 기록도 단축되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는 '정직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직한 세상에서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아빠의 소중한 인연

우리 딸 소연이에게

삼표산업 레미콘공장운영팀
최진영 과장



최진영 과장이 딸을 무릎에 앉히고
미소짓고 있다.



1 최 과장이 첫째 딸 소연이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2 최 과장이 아이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3 최 과장이 아이들에게 피자를 나눠준 후 손을 흔들고 있다.

4, 5 딸 소연이는 아빠가 읽어주는 편지 내용을 듣고 눈물을 터트렸다.

이제 딸아이는 초등학생이 된다. 유치원 졸업 기념 이벤트를 위해 피자를 한 아름 들고 온 아빠를 본 딸은 슈퍼맨이라도 본 듯 눈이 동그래진다. 아빠가 읽어주는 편지글을 묵묵히 듣다가 이내 닭뚱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린다.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대견하면서 안쓰럽다’는 내용에서다. 의젓한 큰 딸 같아도 아빠에게서는 아직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한없이 어린 응석받이 천사다.

사랑하는 딸 소연아!!



소연이가 아빠 엄마에게 왔던 그 첫 만남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어느덧 이렇게 잘 자라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구나.

항상 의젓하고 배려심이 많아 아빠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지 않고 어린 동생을 아끼며 돌보는 소연이의 모습을 볼 때면 아빠는 소연이가 참 대견스러워. 하지만 한편으로 첫째로서 누나로서 감수하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었다.



그런 소연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아빠는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소연이 되면 항상 이 든든한 아빠가 있으니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친구들, 선생님과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소연이의 앞길은 분명 밝고 희망된 날들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아빠는 생각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소연이의 소중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빠한테 많이 들려줘. 컷다고 “아빠는 배고~” 이러면 안 된다. ^^



소연아!!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우리 딸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아빠가 더 노력하고 또 기도할게. 우리 딸 사랑해.

- 딸사랑 아빠가 -

최 과장은 유치원을 졸업하는 첫째 딸을 위해 피자과 빼빼로를 한아름 들고 유치원을 방문했다.

동양시멘트의 장점과 기업문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자”



1 동양시멘트 전경.

동양시멘트는 1957년 6월 15일에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시멘트 회사이며, 동양시멘트의 전신인 오노다시멘트(1942년) 시절까지 합한다면 창립한 지 70년이 넘는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동양시멘트는 시멘트산업의 산증인이자 만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후발 시멘트 회사들이 하나 둘 설립될 때마다 동양시멘트는 업계 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후발주자의 거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지난 1997년 IMF 사태 이후 모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신규 투자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설비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일부 시멘트사가 석회석 광산개발에 어려움을 보여, 향후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동양시멘트는 2010년 신광산 개발 완료로 향후 4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석회석을 확보했다. 그 이후에도 수십년 이상을 채광할 수 있는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을 보유한 해안가에 위치하여 수출하기 어려운 내륙 사에 비해 내수 수요와 상관없이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설비 가동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조건 및 해송을 통한 물류 경쟁력도 뛰어나다. 원자력 인증,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인증, 일본 건설성 인증 등 뛰어난 시멘트 품질 관리 능력과 함께 다양한 특수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점 또한 동양시멘트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내외 경쟁력과 함께 오랜 기간 시멘트사를 운영하면서 배출했던 수많은 인적자원과 소속 임직원의 높은 애사심,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노하우(Know-how) 등 인적 경쟁력 또한 월등하다.

지역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양시멘트에 근무 중인 종업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15년이 넘으며,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쌓은 끈끈한 유대감과 상호 간의 정이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근무가 가능하고 친밀한 유대감과 상호 간의 정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 2 동양시멘트가 시멘트수출입 전용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삼척항.
- 3 최근 동양시멘트는 사일로를 새롭게 단장했다.



동양시멘트는 시멘트 생산공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의 실적만으로 회사의 손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다.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특출한 개인능력보다는 다른 부서 및 상하 직원 간의 협조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부서 및 상하 직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쌓인 유대감은 서로를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도 우수한 인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 변화에 대처하는 속도가 늦고, 업무결정이 느리며,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는 조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동양시멘트는 회사의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뛰어들고 매진하는 기업문화를 갖고 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지난 2013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공장가동 중단, 판매 중단 등을 겪으며 영업력과 회사 신용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양시멘트는 회사의 비용 집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운영자금 확보와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원자재 구매를 차질 없이 진행

하여 공장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기업회생절차라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회사를 떠나지 않고 생산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행동은 1년 5개월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동양시멘트는 공장이 위치한 삼척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끈끈한 상호 간의 정이 회사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까지 전파되도록 했다. 동양시멘트는 회사 차원에서는 지역출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1990년 동양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마을발전기금 출연, 행사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재난구조 활동, 지역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종업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양봉사단'이라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결손가정 돕기, 도시락 배달, 연탄배달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지역과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동양시멘트가 이제는 삼표그룹의 일원으로서 같은 배를 탄 식구가 됐다. 동양시멘트 입장에서 새로운 환경이 낯설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성장이 정체된 회사가 아니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시멘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기업문화가 삼표의 기업문화와 화학적으로 융합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2016년 새해 ‘소망’과 ‘다짐’

2015년은 동양시멘트를
새 식구로 맞이하는 등
삼표그룹에 있어서
유의미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즐겁고 아쉬웠던 2015년을 마무리하고
멋진 2016년을 기원하기 위해
사보에서 2016년 ‘소망’과 ‘다짐’에
대한 포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Promise & Wish



삼표기초소재
분체신사업팀
—
김환수 과장

● 뱃속에 있는 둘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와
아들 사진입니다. 지난해 계획한 대로 2016년에는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디 무사히 출산해서
첫째 아이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 우리 딸내미 신채린양.
아빠가 사랑하는 것 알지?
아빠가 분유값 열심히
벌어 올테니 많이 먹고
건강히 자라거라.
지금처럼 항상 웃는 얼굴로
내년에도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자!



삼표이앤씨
SM팀
—
신현대 대리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품질관리팀
—
장재혁 사원



● 2015년 12월에 찍은 여주 PC공장의 하늘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황금빛 가득한 하늘처럼 삼표그룹 임직원 모두에게
찬란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서울 축제에서 아이들이 선택한 문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동양시멘트를 포함한 삼표그룹 임직원 모두가 만남의 인연이 행운이 되고,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이 되는 한 해를 만듭시다.

동양시멘트
특수영업팀
—
윤경상 팀장



● 2015년 아들과 함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족에 소홀했던 한 해를 반성하며
아들과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
전찬희 대리



● 둘째가 태어난 뒤 처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의 숫자만큼 행복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는 분은 만드시고, 있는 분은 더 많이 만드시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여보~ 2016년에도 지금처럼 행복하기로 해요!

송도영업소
공장영업과
—
최지수 대리



●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현장관리를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이면 하루를
잘 보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쉬웠던 지난 해를 반성하고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동양시멘트
준법지원팀
—
안순협 사원



● 그림에는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삼표와 동양시멘트가 합심하여 건설기초소재
으뜸 기업이 되는 2016년을 기원합니다.
기초를 다졌으니 이젠 시너지를 발휘해 봅시다!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
송승현 차장



● 저는 새로운 기운을 꽃에서 받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겨울을
버티다가 어느 순간 꽃망울을 터트리기 때문이죠.
삼표그룹의 2016년은 어느 해보다 활기찬 기운으로
도약하는 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
박선아 사원

● 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붉은 원숭이 띠의 해입니다.
붉은 원숭이 인형과 함께한 우리 아들과 남편,
그리고 삼표그룹 가족들 모두 붉게 타오르는
마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해봅시다.

네비엔
영업1팀 서대구
—
김옥희 대리





취빙산

글/사진. 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최진호 대리

추암
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삼척시청

5.7km

맛과 향이 있는집

3.6km

삼거리식당

4.3km

강구식당

삼척종합
버스터미널

부림해물

4.1km

삼척항

삼척역

[삼척항화센터, 강구식당 – 싱싱한 해산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

근사한 전채 요리 말고 싱싱한 활어회를 드시려고 한다면 삼척항 근처의 삼척항화센터를 추천한다. 이곳에는 횡집 24곳이 웅기종기 모여 싱싱한 활어회로 고객을 유혹한다. 많은 횡집 중 어디로 가야할 지 선택하기 어렵다면 해결방법이 있다. 방법은 '부미수산'을 찾아 횡집을 고르고 '강구식당'에서 먹겠다고 이야기한 후, 화센터 뒤편 강구식당에서 상차림 비용(1인당 3,000원, 매운탕비 별도)을 내면 된다. 부미수산과 강구식당을 추천하는 이유는 동양시멘트 식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보를 보고 왔다면, 삼표가족(동양)이라고 하면 덤을 좀 더 얹어 줄지도 모른다. 전채요리와 함께 좀 더 편안한 장소에서 회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삼척항화센터 바로 맞은편 평남횡집을 추천한다. 자연산 및 양식 모듬회는 물론, 물회와 회덮밥 등 간단한 식사메뉴도 부족함이 없다.

영업시간 08:00 ~ 21:00 (연중무휴)
주요메뉴 해산물(자연산/양식)
주소 강원 삼척시 정하동 41-133
주차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가능(도보 1분 거리)
문의 033-574-3497(강구식당)/010-7347-0887(부미수산)
평남횡집(033-574-8585)

SAMPYO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행복횡집 – 전복물회 전문점]

물회는 여름철 점심메뉴로 인기가 좋는데 행복횡집 전복물회는 사계절 인기가 좋다. "물회 맛은 어디가나 다 비슷하다"고 말하는 직원조차도 후한 점수를 주는 행복횡집 물회의 인기비결은 비슷한 가격에 전복까지 얹어있기 때문이다. 전복물회를 주문하면 물회 육수와 전복, 국수사리, 밥이 따로 나온다. 먹는 방법은 새콤달콤한 육수를 붓고 전복을 투하한 후 회와 채소를 먼저 건져먹고 난 다음에 소면을 풀어서 넣어 먹는다. 그리고 밥으로 마무리한다. 음식점 통유리 너머로 덕산해변의 바다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오션뷰'는 이 집만의 또 다른 보너스다.

영업시간 11:00~20:00
주요메뉴 전복물회(1만2,000원), 회덮밥(1만원), 자연산행복물회(2만5,000원) 등
주소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길 150
주차 주차가능
문의 033-572-3277

6.2km

행복횡집



덕산해수욕장

[맛과 향이 있는 집 – 문어찜 전문점]

인터넷에 삼척 맛집으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음식점 중 한 곳이 '맛과 향이 있는 집'이다. '맛과 향'이라고 줄여 부르는 이곳은 살아있는 문어를 즉석에서 살아주는 단일매뉴 음식점이다. 살아있는 문어가 식재료이기 때문에 음식 값은 시가에 따라 달라지며, 재료가 떨어지지 못 먹고 돌아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문어찜을 주문하면 굴김치와 두부튀김, 마른 김, 갯 지은 밥, 고추장 수제비가 한 상 가득 나온다. 굴김치는 아깍없이 굴을 넣어 김치의 절반이 굴이다. 문어찜의 가격은 보통 10만원 이상으로 비싼 편이지만 대신 양이 많아서 6명이 가도 배부리 먹을 수 있다.

영업시간 17:00~22:00
주요메뉴 문어찜(시가 10만원 이상)
주소 강원 삼척시 성내동 132-2
주차 인근 유료주차장 등
문의 033-575-0215

[부림막국수 – 메밀막국수]

냉면(막국수, 국수)은 사람마다 선호하는 취향이 달라 유명 맛 칼럼리스트의 추천 맛집도 호불호가 갈린다. 삼척의 부림막국수는 전통적인 영동지방 막국수의 맥을 잇고 있다. 메밀과 전분을 반반씩 섞어 가늘게 즉석에서 뽑은 이 집의 막국수는 면이 쫄깃하고 멸치 육수가 시원해 여름철 별미로 인기가 높다. 특히 막국수와 함께 제공되는 하얀 배추김치와 얇게 저민 무김치는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막국수의 면과 찰떡궁합을 이룬다. 이 집의 또 다른 대표 메뉴는 수육.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서울에서도 알아준다는 필동면옥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영업시간 11:00~20:30 (연중무휴)
주요메뉴 막국수(7,000원), 수육(3만원~4만원)
주소 강원 삼척시 평등길 7
주차 주차가능
문의 033-572-1277

[부림해물 – 삼척항에서 공수한 대구로 만든 대구김치국]

삼척해수욕장 인근 부림해물은 다양한 해산물 요리로 소문난 곳이다. '물회전문'이라는 간판과 넓은 주차장을 자랑하는 이곳의 인기메뉴는 대구김치국과 회무침. 바다 식재료 음식을 선호하지 않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국물을 일부러 남기는 식습관을 지닌 직원들도 부림해물의 대구김치국을 맛보면 바닥까지 싹삭 비운다. 강렬하지도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은 시원한 맛에 함께 식사를 하던 직원은 "식재료를 똑같이 사서 만들어도 왜 집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구김치국 주재료인 대구는 알래스카산 냉동대구가 아니라 동해에서 잡은 대구를 가져다 쓴다. 재료가 떨어지면 일찍 문을 닫으니 전화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 회무침을 한 접시 먹고 난 뒤에 대구김치국을 먹는 게 일반적인 순서다.

영업시간 09:00~21:00 (연중무휴)
주요메뉴 대구김치국(9,000원), 회무침(2만원~4만원), 물회(1만2,000원)
주소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3935
주차 주차가능
문의 033-576-0789

삼표인이 소개하는 우리만의 맛집 이야기



강원도 삼척에는 지난해 삼표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있다.

삼척으로 출장 오는 사우들,

또는 여행 오는 사우들을 위해

현지 근무자가 추천하는 맛있는 식당을 소개한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버스 정류장보다 더 많은 듯한 커피 전문점,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커피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커피에 대해 논란도 많다. 커피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얼마만큼 마셔야 해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커피를 즐기는 48세의 직장 여성 김명숙씨는 아침에 그란데 사이즈의 커피를 들고 출근해서 오전 중에 마시고, 점심식사 후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입가심을 하며, 오후 늦게 피곤이 느껴질 때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는 생활을 오래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뉴스에서 카페인 과다 섭취가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커피를 끊어보려고 했더니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두통이 생겼다. 이 두통은 일 이 손에 잡히지 않고 생각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며 지끈지끈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커피를 다시 마셔보니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커피 끊는 것을 포기하고 조금씩 양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1896년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마신 것을 최초로,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도 10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최근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 커피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게 됐다. 나이가 커피에 대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바리스타가 우리 사회에도 안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벗어나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을 적당히 섭취하면 이노 작용,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고 평활근 이완에 의한 스트레스 감소 및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각성효과를 볼 수 있다. 각성효과는 카페인 섭취 후 몇 분만에 나타나, 30~40분 후에는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설탕을 첨가하면 기분 좋은 단맛과 함께 혈당 상승으로 인해 힘이 솟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각성효과가 떨어지면 몸이 축 처지면서 다시 커피를 찾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된다.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과도한 양이 체내에 축적되거나 카페인 섭취가 줄어들었을 때 이에 대한 갈망이나 의존이 생긴다면 곤란하다. 수면 장애, 잦은 소변, 위장 장애, 안절부절, 산만함, 신경과민, 흥분, 지칠 줄 모름, 심계항진(가슴 두근거림), 근육 경련, 안면

홍조 등의 증상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권장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을 때 카페인 중독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위 사례에 등장하는 여성은 '카페인 중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호식품으로 생각했던 커피를 가벼운 마음으로 멀리하려고 했는데 참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서 커피를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카페인의 경우 일반 성인 권장량이 400mg, 임산부는 300mg이라고 한다. 카페인 1캔에 약 25mg, 믹스커피나 캔 커피에 약 70mg이 함유돼 있다. 권장량은 '이만큼 먹으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성인 남성이라도 하루에 믹스커피를 6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셈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두통약이나 감기약을 먹고 있거나,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걱정되는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의 총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위 사례에 등장하는 여성처럼 '카페인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섭취한 카페인의 50%가 배출되는 반감기는 약 4~5시간 정도이고, 임신한 여성이나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반감기가 2~5배까지 늘어난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카페인 체내에 남아있고, 임신한 여성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더 오랜 기간 카페인 체내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24시간 정도 예상되므로, 하루 한 번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 몸에는 1년 내내 카페인 잔류하고 있는 셈이다. 카페인의 대사속도를 느리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알코올인데 과도한 음주로 간 기능에 무리를 주고 있다면 카페인 섭취를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커피의 효능과 해로움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반인의 건강에 나쁜 음료는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섭취가 건강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좋은 기호 식품이다. 그러나 카페인 의존증이 생겨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면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이나 대사작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기준을 정해 적절한 수준으로 커피를 마신다면 피로를 풀어주는 각성제로서 식후 디저트로서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렛 상품의 진실, 아울렛과 백화점 제품에는 정말 차이가 있을까?



백화점과 아울렛 상품의 차이를 알고
나에게 맞는 현명한 소비 방법을 살펴본다.

백화점에서 안 팔리는 이월상품을 모아서 파는 아울렛이 유통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전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전경.

패션업체들은 늘 매 시즌(SS 봄/여름, FW 가을/겨울)마다 재고와의 전쟁을 치른다. 기업들은 재고를 쌓지 않는 게 최선책이지만 업종의 성격상 재고 없이 가는 것은 어렵다.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생산하는 패션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QR(시장 반응생산)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재고는 쌓이기 마련이다. 요즘도 이상기온 때문에 패션기업들은 재고 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상 판매에서 안 팔린 이런 재고품들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아울렛 매장(일부 상설할인매장)이다.** 아울렛 매장도 도심지에 있는 매장과 도시 인근에 있는 매장, 시골에 있는 매장 등으로 이동 순위가 나뉘질 수 있다. 도심에서 멀수록 대체로 할인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아울렛 매장에서도 판매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박스에 모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원칙이다. 기부할 경우 세금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선단체는 국내 혹은 해외로 나뉘지는데 패션기업들은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재고품이 해외로 나가면 브랜드 인지도에 타격이 덜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재고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아울렛 매장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고 바로 제품을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다.

한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재고품을 헐 값에 유통시키지 않고 소각한다며 홍보하던 기업들이 있었지만 멀쩡한 옷을 태운다는 비판이 제기돼 지금은 비밀리에 태우거나 태운 것을 발

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재고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울렛 매장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정상 매장보다 아울렛 매장이 주위에 더 많다. 이렇게 아울렛 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진 것은 패션기업들의 유통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상 판매 기간 보다 할인 판매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도 아울렛 중심 체제, 즉 할인가격에 옷을 구입하는 패턴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면서 패션 유통시장도 왜곡돼 정상 매장에 조금 머물다 바로 아울렛으로 가는 상품의 비중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정상 판매보다 아울렛 판매를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 일부 기업에서 아울렛 매장으로 바로 가는 아울렛 전용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것도 이 때문에 생겨났다. 실제 이것이 적발돼 비판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고 아울렛 제품이 정상 매장을 거치지 않았거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지 않은 채 바로 아울렛으로 직행한 제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은 기업들의 1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파악하기 힘들다. 기자들도 심층취재를 하지 않는 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현재 패션제품(옷)의 경우 백화점이나 가두매장(대리점)에서 판매하다 재고품이 남으면 아울렛 매장으로 흘러가 판매되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다. 이런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울렛으로 직행하는 아울렛 전용 제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제품이 품질 측면에서 정상 매장의 제품과 똑같을 수는 없다. 만약 아울렛으로 바로 오는 정상 매장의 옷을

발견했다면 두말 없이 재빨리 구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럴 경우 행운을 잡은 것이 나 다름없다. 백화점이나 가두매장(대리점)에서 정상판매 기간에 정상가격을 주고 옷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아울렛 매장에서 할인가격에 구매하는 게 더 좋을지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때 필자는 “각자의 소비패턴, 취향, 경제적 척도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답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옷은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니지만 생선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정상 매장에서 정상 가격에 판매될 때는 생선(옷)이 신선하게 살아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아울렛으로 넘어 왔을 땐 생선(옷)이 죽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옷을 백화점이나 가두매장(대리점)에서 정상가격을 주고 구입했거나 아울렛 매장에서 아주 헐값에 구입했다 해도 디자인이나 유행에 역행하지 않는 한 입고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다. 횡집에서 살아 있는 신선한 생선회를 먹거나 덜 신선한 생선회를 먹어도 아주 상하지 않은 이상 별 탈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덜 신선한 생선회를 먹었지만 가격이 저렴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는 반면 신선한 회를 먹지 못해 불만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생선회와 같은 이치로 옷을 바라보면 쉽게 판단이 설 것 같다. 다만 옷은 생선회와 달리 오래 묵어도 팔 수 있고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롯데와 현대 등 유통 대기업은 최근 백화점보다는 아울렛이나 복합 쇼핑몰에 집중하고 있다.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전경.

굳이 새 것 살 필요 있을까? 요즘 대세, 중고 거래

중고품이라고 해서 낡고 쓸모 없는 물건만을
떠올리지 않는다. 구입해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는 세상이다.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필요 없는 물건은 알차게 정리할 수
있는 중고물품거래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됐다.



BUY 취업해 서울에 상경한 E양. 월세 원룸에 자그마한 장롱
부터 책상, 당장 필요한 세간까지 웬만한 건 모두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정만했다. 사회 초년생으로 살림을 새 것으로 장만
할 돈도 없거니와 결혼과 이사 등을 대비해 집을 최소화했다.
이사 시 부피가 큰 물건들은 중고사이트에 재판매할 계획이다.

BUY 빌트인 아파트로 이사를 앞둔 A씨는 10년 된 돌침대가
굴치거리였다. 너무 무거워 옮기기도 힘들고, 버리려고 해도
수거비가 만만치 않았다. 중고사이트에 '와서 가져갈 것'이라는
조건으로 단돈 1원, 사실상 공짜에 물건을 내놓았다. 몇 군데서
연락이 왔고 가장 먼저 찾아온 이에게 돌침대를 넘겼다.

BUY 창업을 앞둔 B씨. 사무실 책상과 의자, 집기들을 갖추려
고 보니 구입비용이 만만찮았다. 발품 끝에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 중인 중고사이트 영업장을 방문해 1년도 채 사용하지
않은 사무용가구 일체를 구입했다. 새 상품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당초 구입 예산의 60%를 절감할 수 있었다.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 변화

이전에 중고거래라고 하면 물품이 낡고 불편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
지만 요즘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거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앞
의 예처럼 필요한 물건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반대
로 처치 곤란한 물건을 내다 팔아 뜻밖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내게는
집에 불과한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되는 마법(?)의 거래랄
까. 중고거래 품목도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해졌다. 생활
가전에서부터 가구, 각종 생활용품,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게임기, 의류,
육아용품에 책, 자동차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특히 사용기간이 짧
은 유아용품이나 교체가 잦은 디지털기기, 유행을 타는 취미생활용품 등
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이처럼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데는 인터넷
이 큰 역할을 했다. 중고 거래의 8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 간 직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카페부터 각종 커뮤니티 장터, 또 중
고 전문 판매업체까지 시장도 다양하다.

중고, 불황 속 소비 대안으로

중고거래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
기침체 여파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졌고,
새 것을 살만한 여력이 없어졌다. 특히 주부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거기다 전
체 가구의 25%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급증도 한 몫 단단히 했다. 혼자
사는 집에 굳이 고가의 신상품을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이사나 결혼 등 신변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실용적인 선택을 한다.
굳이 실속파의 쇼핑이라고 분류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고에 대한 선입견
은 사라졌고, 불황 속에 소비 대안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소비자가 자
신의 필요에 맞게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처럼 호황을 누리는 중고거래 시장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개
인 간 중고 직거래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네이버 '중고나라'의 경우
회원만 1,400만 명을 넘었으며, 거래 규모도 연간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거래 기술도 안전결제
부터 중고거래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크고 작은 거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
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원 수 많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BEST 5



1 **1,000만 회원의 시끌벅적한 온라인 장터**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http://cafe.naver.com/joonggonara>)
가입한 회원만 1,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중고장터다. 의류, 신발, 화장품, 가전제
품, 명품까지 말 그대로 안 다루는 물품이 없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유·아동용품 분야가 강세며
다양한 품목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일반 회원들끼리 직거래라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
나라'라는 반어법의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사기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2 **모든 거래가 안전 보장되는 옥션 중고장터** (www.auction.co.kr)
3분 안에 상품 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간소한 절차, 실시간 상품 매칭 서비스, 경매 시스템을 접
목시킨 새로운 거래 시스템까지 사용자 편의성에 맞춘 서비스로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모든 거래가 안전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주방가전, 카메
라 액세서리, 휴대폰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신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유아용 신발, 가방, 잡화류 등
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3 **구매 후 AS까지 책임지고 보장하는 중고 STREET 11번가** (www.11st.co.kr)
구매한 지 30일 이내 제품 이상이 발견되면 AS 비용을 최대 1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안심구매
서비스 제도 도입으로 신뢰는 물론 거래 활성화까지 이뤘다. 특히 미세한 문제로 반품됐거나 전
시 상품을 판매하는 리퍼브 제품의 거래가 활발하다. 사용감이 거의 없어 새 상품과 닮은 물
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 만족도가 크다.



4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탄 유·아동용품 전용**
맘스다이어리 안심중고장터 (<http://market.momsdiary.co.kr>)
원래는 육아일기를 쓰는 사이트였지만 현재는 유·아동용품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하루 평균 5,000명의 이용객이 다녀가며 거래액만 월 1억 5,000만원~2억원에 달한
다. 아이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사기엔 아깝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많은 엄마들이 사이트를 클릭한다는 후문이다.



5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거래 가능, 알라딘 중고샵**(<http://used.aladin.co.kr>)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운영하고 있지만 책은 물론 음반까지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 근처 오프라인 자점이 있으면 그
곳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간부터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책까
지 찾는 즐거움이 쏙쏙하다.

중고 구매 사기를 피하는 알짜 Tip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올라온 물품은 의심하라
판매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새 상품이라면 정가의 80%,
사용 흔적은 있으나 상태가 양호한 상품은 50~70% 할인된 가
격으로 사이트에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다면 거래하기 전
의심해보는 게 좋다. 특히 장물을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는 경
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직거래보다는 안전거래를 이용하라
안전거래란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구매를 승인해야 제3의
업체를 통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방식이다. 건당 수수료가 불
지만 안전거래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거래 전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확인하라
경찰청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이나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 치트(<http://thecheat.co.kr>)에서는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된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판매
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 전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보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반드시 상품 사진을 확인하라
판매자가 올려놓은 물품 사진이 직접 찍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
다. 인터넷에 게시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올리는 경
우가 많다. 이럴 땐 물품을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더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해서 2차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름 나라,

남국으로 간다고
전해라!

Okinawa

눈이 시원해지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희고 고운 모래, 산호의 섬

언제 겨울이 왔을까? 계절은 사람이 늙는 것처럼
시나브로 쇠퇴해간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눈
에 띄지 않지만, 어느새 겨울은 가혹한 현실로
자리 잡았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좀 내려가는
가 싶더니, 차가운 바람이 제멋대로 불어 제친
다. 온 천지가 동토(凍土)의 땅으로 갈아입는다.
사람들의 고개가 자꾸만 숙여진다. 퇴근길에 잔
뜩 웅크린 어깨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인다. 외투
깃을 귀가에 바짝 붙이고 종종걸음을 재촉한다.
입가에 찬 기운이 맴돈다. 호호 부는 입김 사이
로 뜨거운 국물이 간절해진다. 잠깐씩 비치던 햇

빛은 잿빛 하늘에 얼었다. 속까지 차가워지는 거
울, 스멀스멀 뒷걸음치는 세월이란 놈을 탓한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진다. 태양이 작열하는 남
녘으로의 피안(彼岸), 파란 바다, 순수한 하늘,
은빛 모래 백사장,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매력
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일본의 최남단 오키
나와로 간다.

한 쪽의 그림 같은
'동양의 하와이'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유난히 높고 푸른 하늘,
울창한 나무와 거리를 수놓은 화려한 히비스커
스와 부겐빌레아. 비행기에 내려 나하공항을 벗

어나는 순간 마주치는 오키나와의 첫인상은 일
본의 어느 도시와는 확연히 다르다. 오밀조밀한
인공미가 일본 본토 고유의 정형(定型)이라면 오키
나와는 아국적인 풍경과 남국의 미(美)를 만
낄 수 있다. '동양의 하와이'라는 화려한 수식
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빼어난 절경이 펼쳐진다.
오키나와에서는 고개를 살포시 돌리기만 해도
순백색의 모래 해변과 초록빛 바다가 시야 한가
득 들어온다. 하와이나 동남아 관광지 어디가가
아닐까 싶은 착각이 든다. 바다 물빛만 놓고 보
면 남태평양 유명 휴양지와 견주어도 결코 뒤떨
어지지 않는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진한
코발트색 바다는 금방이라도 푹땡 뛰어들고 싶



1

-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동양 최대라는 추라우미 수족관은 바다를 그대로 옮겨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고래상어, 대형가오리 등이 살고 있다.
- 2 2005년에 개통한 코우리대교는 총 길이 2km로 오키나와에서 가장 긴 다리다. 에메랄드빛 산호초 바다 위를 건너며 바라보는 경치는 일품이다.
- 3 오키나와의 해변은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비치로 부드러운 모래가 펼쳐져 있어 가족들이 놀기에 최적이다.



2



3

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발자국 흔적을 내기가 미안한 고운 모래사장, 선명한 색상의 열대어들이 무리 지어 쫓아다니는 깨끗하고 맑은 수심의 해안 등. 이국적 분위기와 남국의 자연환경은 일상에 지친 이에게 활력을 준다.

크고 작은 섬 160여 개가 모여 있는 오키나와는 홋카이도(北海島)와 함께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의 하나다. 일본에서 돈푼까나 있다는 이들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오키나와로 휴가를 가고, 여름에는 우리나라 가을과 닮은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난다. 홋카이도가 한겨울 눈(雪)축제로 이름난 설국이라면 오키나와는 산호바다를 끼고 있는 남국(南國)이다.

그렇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오키나와는 한국인에게 생소한 곳이었다. 일본 땅이지만 미군이 지배하고 주둔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미군 전지 기지로 치부되어 왔다. (실제로 1945년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이후 미 군정이 차지했다가 1972년에야 반환했다. 지금도 오키나와 본섬의 4분의 1은 미군기지로 들어차 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국내 상영되면서 부쩍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었다.

도쿄에서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나 걸리지만 인천공항에서는 2시간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만이 취항했지만, 최근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이 대거 투입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오키나와를 오갈 수 있다. (항공사 특가를 이용하면 거의 김포-제주 비행기 요금과 비슷하다. 단, 환불과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일본 본토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출발하는 일본 국내선을 이용하면 된다.

오키나와를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은 대부분 본섬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본섬 자체도 수족관, 골프장, 쇼핑몰, 카페, 비치리조트에 27년간의 미 군정 통치로 빚어진 독특한 문화유산까지 남아 볼거리나 즐길 거리로 모자람이 없다. 여기에 활성화된 렌터카 여행으로 자유로이 다니는 편리함도 그렇고, 하지만 오키나와는 생각 외로 넓고 다양하다. 오키나와를 두 번째 찾는 이라면 본섬 주변의 섬이나 이시가키지마를 중심으로 한 아에야마 제도, 미야코지마를 중심으로 한 미야코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을 내 마음대로!

오키나와에는 지하철, 온천, 눈(스키) 등 일본을 대표하는 3가지가 없다. 특히 '기차의 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나하 시내의 모노레일을 제외하고는 철도 비스듬하게 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 택시가 편하지만 알다시피 일본 택시는 가격이 비싸다. 제주도 택시 요금을 생각하고 타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애매한 곳 이외에는 탈 엄두를 내면 안 된다.

시외버스는 운행 간격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어떤 지역은 하루에 4편 정도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다른 관광지로 가기가 불편하다. 막차도 18~21시 정도로 빨리 끊긴다. 만약 버스 시간을 놓치면 30분~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도로 사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자전거를 대여해 본섬을 일주하는 이들도 많다.

오키나와 여행 대세는 렌터카다. 차선이나 운전대가 우리나라와 반대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운전하는 오른쪽에 황색 분리선호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한 시간쯤 지나면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등을 기댄 채 느긋하게 운전하게 된다. 나하 시내를 벗어나면 차가 많지 않아 장릉면허증 소지자도 운전이 가능하다. 자동차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시속 50km 정도로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초보자도 얼마든지 오키나와가 자랑하는 드라이버 코스를 내밀릴 수 있다. 전화번호만 알면 풍경이 멋진 오션뷰 카페, 숲 속 카페 등 숨겨진 명소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울고 떼쓰는 아이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렌터카로 여행하려는 사람은 차량대여 비용과 기름값이 비쌀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 1,000cc 이하의 경차를 선택하면 국내 렌터카 회사와 가격이 비슷하며 휘발유 가격도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비게이션도 한국어 지원이 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 길을 찾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연 그대로의
섬이며, 바다

스위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도시의 떠들썩한 세상의 차량 한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해지거나 수심에 잠기게 될 때, 여행할 때 만났던 이미지들이 노여움과 찬박한 욕망을 약간은 무디게 한다고 했다.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와 맑은 바람 속에 자신을 던지게 되면 정신과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산호초가 빚어내는 형형색색의 바다 색깔은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오키나와의 물빛은 일상의 소소한 근심을 다 씻어 내릴 듯한 에메랄드빛이다. 햇살에 반짝이며 몸을 터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리다. 석 달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밤에 창문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 가득 별빛이 우수수 떨어지는 낭만을 품은 오키나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오키나와에 같이 갈까요?"라고 말을 걸어온다면 이는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놓치면 안 될 버킷리스트

추라우미 수족관(美ら海水族館)

2002년 11월 문을 연 추라우미 수족관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이 수족관을 보기 위해 오키나와를 오는 사람도 있다. 높이 8.2m, 폭 22.5m, 두께 60cm, 용량 7,500톤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조 안에는 길이 8m에 달하는 고래상어 세 마리가 있다. 이 외에도 쥐가오리를 비롯해 약 70종 1만6,000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다. 기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해수의 수압을 견딜 수 있게 제작됐으며 수조 안으로 비치는 자연광을 배경으로 유유히 헤엄치는 고래상어의 모습이 환상적이다. 수조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검은 실루엣으로 찍은 사진은 추라우미 수족관의 단골사진이다. 수족관 밖에는 돌고래쇼를 볼 수 있는 해양박물관과 1975년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 개최에 맞춰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인공비치인 에메랄드 비치가 있다.

슈리성공원(首里城公園)

오키나와가 자랑하는 문화 중 하나가 나하(那覇)에 자리한 류큐왕국 '슈리성(首里城)'이다. 국왕이 업무를 보던 슈리성은 붉은 외관, 부드러운 유선형의 처마 등 중국과 일본의 양식이 혼재된 독특한 외양을 자랑한다. 오키나와 본토 복귀 20주년을 맞아, 지난 1992년 11월 일반에 공개됐다. 창건된 연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14세기에 다이이치쇼씨가 류큐를 통일한 후 왕성으로 세웠다고 전해진다. 1945년 오키나와전쟁으로 대부분이 소실됐으나 복원작업을 한 후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성 주변의 운치 있는 옛길 이시다타미미치는 일본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꼽힐 정도로 예스러운 정취와 풍광이 뛰어나다. 돌길을 걷다 보면 넓적하고 평평한 돌 틈 사이의 푸른 이끼와 사람들의 왕래로 반들반들해진 광택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오키나와 본섬에서 430km 떨어진 이시가키지마는 아에야마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투명한 바다와 고운 백사장, 온화한 날씨 때문에 남국의 정치를 만끽하고자 하는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이 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닷물 빛. 일본 100경의 하나로 꼽히는 카비라만은 오키나와에서도 바닷물의 투명도가 가장 높다. 길지 않은 해변에는 하얀 밀가루 같은 모랫바닥이 환히 비친다. 연근해에서 떨어진 산호 숲이 있는 곳은 청록색을 띤다. 이시가키지마를 제대로 즐기려면 수상 레포츠가 좋다. 카비라만 주변에는 대형 가오리를 제대로 해집고 다닌다. 스킨스쿠버를 할 수 없다면 스노클링도 괜찮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물려다니는 모습이 신비롭다. 그래도 물이 무섭다면 배 바닥에 유리를 붙인 바텀글라스보트를 이용하면 된다.

미야코지마(宮古島)

오키나와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미야코지마는 일본인들도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아름다운 해안선, 순백의 백사장, 코발트블루의 투명한 바다색은 사방이 바다인 오키나와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름다워 해양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키나와 최고의 바다 색깔로 유명한데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10곳 중 3곳이 이곳에 있다. 하나같이 암초와 산호초로 이뤄져 높은 투명도를 자랑한다. 지리적으로 대만이나 필리핀과 더 가까운 탓인지 일본이지만 일본스럽지 않은 곳으로 류큐왕국의 모습에 남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합쳐져 독특한 인상을 풍긴다.



Reader's Quiz

E-MAIL

WINTER
Forest
CAMPING

★★★★★

❶ 이번호에서 가장 유익하게 본 칼럼과 이유는?

❷ 향후 사보에서 읽고 싶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❸ 국내 최초 고강도 대구경 PHC 파일 생산, 세계 최초 초고강도 PHC 파일 개발을 했던 우리 공장 이름은?

❹ 7년째 삼척시 대표로 마라톤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직원은 누구일까요?

❺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양시멘트는 0000년에 설립됐습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채워서 2월 12일까지 이메일 [홍보팀 장새롬 대리 com2mi@sampyo.co.kr]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독자
퀴즈

〈지난호 퀴즈 정답〉

❶ 성수공장

❷ 1966년

❸ 삼척공장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네비엔 R&D전략팀 손보배
동양시멘트 인사총무팀 진윤선
삼표 시스템1팀 최수린
삼표산업 풍납영업소 공장품질과 이호선
신대원 중기팀 하상현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삼표** 홍보팀 장새롬 대리 com2mi@sampyo.co.kr / 레미콘 **삼표산업** 몰탈영업팀 조세은 사원 tpsl@sampyo.co.kr
골재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장성현 사원 clzls77@sampyo.co.kr / 철도, 건설 **삼표이앤씨** 콘크리트신규사업팀 차광일 대리 chaki83@sampyo.co.kr
분체 **삼표기초소재**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 철스크랩, 환경자원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IT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사원 dbswls1208@sampyoins.com / 물류 **삼표** 물류기획팀 황영만 사원 poireo@sampyo.co.kr
시멘트 **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최진호 대리 jinho.choi@tongyang.co.kr

사우 동정

신입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경한	영업2팀 포항	남경아	사원	2015.12.14
경한	포항하역팀	김민정	사원	2015.10.12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품질과	임세열	사원	2015.11.09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 품질과	오금중	사원	2015.11.09
동양시멘트	전북지사	강준희	사원	2015.12.14
삼표	선박운영팀	김영진	사원	2015.10.29
삼표기초소재	보령공장 품질과	이진성	사원	2015.12.07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이현상	사원	2015.11.16
삼표산업	골재품질경영팀	김목규	사원	2015.11.09
삼표산업	구매팀	이찬희	사원	2015.11.09
삼표산업	김포공장 영업과	전지선	사원	2015.11.05
삼표산업	서부공장 품질과	이필원	사원	2015.11.09
삼표산업	성수공장 품질과	이승준	사원	2015.11.09
삼표산업	웅인·광주사업소 관리팀	김웅휘	사원	2015.11.16
삼표산업	인천건설팀	신지혜	사원	2015.12.07
삼표산업	재무팀	박선주	사원	2015.10.23
삼표이앤씨	구매팀	이원복	사원	2015.12.02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권기만	사원	2015.12.02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권오성	사원	2015.10.12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이상온	사원	2015.12.22
삼표피앤씨	제천공장생산팀	최우영	사원	2015.11.23
유니콘	아산공장 품질과	신민재	사원	2015.11.09

경력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경한	비철영업팀	김도균	사원	2015.11.02
경한	철원개발팀	유승일	사원	2015.11.02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관리과	천성준	주임	2015.11.04
네비엔	소각영업팀	김대운	대리	2015.12.02
네비엔	소각영업팀	왕재호	사원	2015.12.14
네비엔	소각영업팀	최형창	사원	2015.11.16
네비엔	영업1팀 서대구	심재운	과장	2015.10.01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네비엔	환경기획팀	이창민	사원	2015.11.23
네비엔알씨	자원화팀	이상목	대리	2015.11.09
동양시멘트	구매팀	김민식	차장	2015.11.23
동양시멘트	준법지원팀	정진천	부장	2015.11.16
삼표	BCT영업팀	이현우	사원	2015.11.16
삼표	BCT운영팀	정세영	과장	2015.11.16
삼표	BCT운영팀 당진SLAG출하실	황준서	사원	2015.11.16
삼표	D/T운영팀	김만방	과장	2015.11.23
삼표	사업개발팀	공정석	과장	2015.11.02
삼표	사업개발팀	박광필	대리	2015.11.02
삼표	선박운영팀	이창현	차장	2015.11.19
삼표기초소재	당진FA공장 관리과	남덕희	과장	2015.10.16
삼표기초소재	당진Slag공장 생산팀	윤영광	사원	2015.10.12
삼표산업	웅인공장 관리과	김민수	주임	2015.10.16
삼표산업	웅인공장 관리과	이운범	주임	2015.11.16
삼표산업	평택공장 관리과	김상우	사원	2015.11.05
삼표산업	혼화제공장 관리과	이종원	과장	2015.12.02
삼표이앤씨	연마유지보수팀	정관동	사원	2015.11.10
삼표피앤씨	기술영업담당	최호철	상무	2015.12.02
신대원	양주정비	강준수	사원	2015.12.02
신대원	예산사업소 관리과	김용주	대리	2015.11.23
신대원	예산영업소	손동경	사원	2015.12.02
신대원	중기팀 단양출장소	김영제	사원	2015.11.11
신대원	중기팀 단양출장소	이수성	사원	2015.11.02
신대원	화성정비	김희중	사원	2015.12.02